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톰 헝크스 주연 1994년작 '포레스트 검프' 9월 8일 재개봉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르지.'

이 명대사를 남긴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다시 온다. 개봉 22주년을 맞아 오는 9월 8일 재개봉한다.

지난 1994년 전 세계에 개봉된 직후 인생과 사랑에 관한 따뜻한 메시지를 선사하며 '검프 신드롬'이라 일컬어지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동네 바보오빠'의 무한변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했던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감동 드라마다. 어리숙하게 완벽 변신한 젊은 톰 헝크스를 다시보는 재미가 있다.

(주)팝엔터테인먼트는 일러스트 스페셜 3종 세트 포스터를 공개하며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나이키 운동화, 벤치, 초콜릿 상자를 주제로 한 포스터다.

먼저,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뒤바꾼 달리의 상징인 '하얀 운동화'의 이미지에는 '엄마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라는 대사가 삽입되어 있다.

이 장면은 삶의 우여곡절 속 어머니를 잃고 다시 한번 제니를 만나러 가는 포레스트 검프가 버스를 기다리며 처음으로 한 여인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의 첫 대사이기도 하다.

두 번째 나무 벤치는 영화의 포스터로도 유명한 이미지. 그 위에 새겨진 '우리

의 인생도 어떤 선택을 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명대사가 담겼다.

조금은 모자라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남자 포레스트 검프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 팀에 승리를 안겨준 미식축구 선수, 전쟁 영웅, 수많은 이들의 멘토 등 모두가 그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그의 기적 같은 삶의 감동을 뜨겁게 예고한다.

마지막, 커다란 가방 위에 놓인 초콜릿 상자 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르지'라는 대사는 '포레스트 검프'의 최고의 명대사다.

임종을 눈앞에 둔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는 아들의 물음에 '그건 너 스스로 찾아야만 해'라고 다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포레스트 검프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빗대어 포레스트 검프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장면이 삽입된 대사로 개봉 이후 현재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언이기도 하다.

'포레스트 검프'는 제67회 아카데미상 식 6개 부문 수상, 제52회 골든글로브 3개 부문 수상을 비롯해 유수의 영화제를 휩쓴 명작이다.

'백 투 더 퓨처' '캐스트 어웨이' '하늘을 걷는 남자'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지난 1994년 전 세계에 개봉된 직후 인생과 사랑에 관한 따뜻한 메시지를 선사하며 '검프 신드롬'이라 일컬어지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영화장인 로버트 저메키스가 연출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톰 헝크스 최고의 역작으로도 손꼽힌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필라델피아'에 이어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

상했다.

올 가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달리를 만나볼수 있는 기회다. 12세 관람가, 142분.

/김민근 기자

남원시청 복싱팀 대통령배 대회 금1 동3 획득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복싱 실업팀이 제46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임우택 선수의 금메달을 비롯해 출전선수 5명 중 4명이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충남 청양에서 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제46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남원시 선수단은 다섯 명의 선수가 총 4체급으로 출전했다. 남원시는 60kg(라이트급) 임우택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체급 신동명 동메달, 75kg(미들급) 석현찬 동메달, 49kg(라이트플라이급) 김도연 동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복싱은 남원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1977년 남원 복싱연맹 설립을 시작으로 남원 출신인 신준섭 선수가 1984년 역대 최강이었던 미국 복싱팀을 꺾고 국내 최초 복싱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하였고, 그 뒤 1986년 신준섭기념체육관이 설립되면서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에 힘써왔으며, 1996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을 창단하여 100개가 넘는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7년 WBC 결승전 다저스타디움 개최

세계 야구 대항전인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WBC 조직위원회는 26일(한국시간) 내년에 개최되는 제4회 WBC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포함한 북미 대륙 개최 장소를 확정해 발표했다. 메이저리그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는 내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WBC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벌어진다. 다저스타디움에서 WBC 결승 라운드가 열리는 것은 제2회 WBC가 열린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WBC에서는 16개국이 4개조로 나뉘어 1라운드를 치른다. 한국은 일단 대만, 네덜란드와 B조에 포함됐다. 오는 9월 미국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예선에서 우승한 팀이 B조의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한다.

B조 1라운드는 내년 3월7일부터 10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다. 라운드 각 조 상위 2개팀이 2라운드 출전권을 얻게 된다. 1, 2라운드는 모두 각 조에 편성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진 확정

'별들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조별리그 대진이 확정됐다.

UEFA는 26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2016~201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대진 조추첨을 진행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뮌헨FC(독일), 셀틱(스코틀랜드)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올시즌부터 맨시티를 이끌고 있는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은 친정팀인 바르셀로나와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도르트문트(독일), 스펜드 리스본(포르투갈), 레기야 바르샤바(폴란드)와 F조에서 16강행 티켓을 다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기적의 우승을 차지했던 레스터 시티는 FC포르투(포르투갈), 클럽 브뤼헤(벨기에), 코펜하겐(덴마크)와 함께 G조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토트넘 핫스퍼(잉글랜드)는 E조에서 CSKA모스크바(러시아), 레버쿠젠(독일), AS모나코(프랑스) 등을 상대한다.

32개 팀이 출전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4개팀씩 8개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조별리그 1차전은 오는 9월15일 열린다.

/김민근 기자

지친 일상... 극장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나의 산티아고 · 올레 · 사랑이 이끄는 대로

폭염속 휴가철이 끝나가는데도 여행을 못갔거나, 늦은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일단 극장에 가보자. 일상을 탈출한 여행을 통해 힐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상영중이다.

수많은 이들의 버킷 리스트이기도 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린 '나의 산티아고'와 제주도로 떠난 신하균, 박희순, 오만석의 트라블 시너지를 엮을 수 있는 '올레', 그리고 인도에서 만난 프랑스 여자와 남자의 트립 로맨스 '사랑이 이끄는 대로'가 마음을 흔든다.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펼쳐지는 마법 같은 로맨스, 영화가 주는 행복이다.

먼저 '나의 산티아고'는 지난 7월 개봉

해 8만 관객을 돌파한 '디톡스 트래블 무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코미디언 하세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다 떠난 산티아고 순례 여행에서 그 동안 몰랐던 새로운 자신과 신을 마주하며 겪은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25일 개봉한 '올레'는 인생의 실패가 필요한 때,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세 남자의 무책임한 일상탈출을 그린 힐링 코미디다.

퇴직 위기에 놓인 대기업 과장 '중필'(신하균), 사법고시 패스만을 13년 채

기다리는 고시생 '수탁'(박희순), 그리고 걸만 멀쩡하고 속은 문드러진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 '은동'(오만석)의 오지랖이 펼쳐진다.

인도의 이국적인 풍경을 엿볼 수 있는 로맨스 영화도 개봉 바둑다. 인도로 떠난 파리지역이 겪는 생생한 여행기 '사랑이 이끄는 대로'는 9월 1일 개봉한다.

영화 음악 작곡가 인도를 찾은 자유로운 파리지역 '양두인'(장 뒤자르맹)이 사랑의 신을 만나러 간다는 엉뚱한 여인 '안나'(엘자 질베르스테인)의 여행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뜻밖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의 거장 끌로드 들루스 감독과 스타 장 뒤자르맹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다. 영화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매력적인 '신비의 땅' 인도의 풍광을 제대로 보여준다. 인도의 몸바이부터 갠지스강의 도시 바라나시까지 포착해내며 이국적이고 화려한 비주얼로 완성됐다. 특히 실제 인도 힌두교의 지도자이자 '프리허그'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아마'가 직접 출연해 지친 관객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